낭중공단소 및 유적 보존비상대책위원회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

▲ 낭중공단소 및 유적보존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 권오흥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동권씨의 단일 2세조로서 아시조亞始祖로 미칭되는 낭중공郞中公의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와 봉하리 일대에 소재하는 단소壇所와 유적을 철훼하고 이를 안동의 서후면 성곡리 능동 시조묘역하로 이설하는 일을 위요하고 의논과 성토가 격렬한 가운데 이의 이설에 반대하고 수호유지를 관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어 향후의 귀추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결사수호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지역의 문중 유지들이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의 한 음식점 ‘남원추어탕 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으로 약속장소를 잡았으나 모임의 소식을 듣고 나온 인사가 많아 커피숍에 자리가 모자라게 되어 인근의 음식점으로 옮겼다. 비 때문에 강릉지역에서 참석키로 한 권순현權純顯、권오식權五湜씨 등이 오는 것을 취소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온 인사들을 빼고도 인원수 20여인이 되었다. 그중에는 멀리 영천永川에서 권영성權寧成 전 영천시의장, 안산에서 올라온 권택진權宅鎭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있었다.

인사들은 서로 만나 자리를 하자 개회를 하기에 앞서 비분에 찬 성토의 말을 쏟아 놓았다. 한 중진 인사가 ‘80년 전에 남북한을 합친 온나라 각처의 자손이 헌성하여 단소를 모으고 2290평 위토를 마련하며 재실과 유허비를 세웠다. 그 유허비에는 다시 비각을 세우고 그런 다음 시일이 오래되어 재실이 퇴락하자 30년 전에는 담장을 두르고 20년 전에는 단소를 크게 치수하였으며 경기 김포에 3천여 평의 위답을 더 장만하였다. 이처럼 유서가 깊고 많은 자손의 헌성과 정서가 서린 아시조 낭중공의 유적과 단소를 하루아침에 파헤치거나 부수어 방치하고 한두 개 석물만 뽑아 옮겨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강개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다른 인사가 ‘한마디로 무모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요 언어도단이다. 어찌 하늘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이런 패륜을 획책하는가. 청도의 정상리 일대에 세거해오는 지역주민이 권릉權陵을 안동권씨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주민이 권릉을 자기네 수호신처럼 섬기며 때마다 벌초를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소홀히 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성역을 우리 권씨자손이 버리고 달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 하고 스스로 질책하면 또다른 인사가 받아 ‘제사지내는 데 사람이 적게 오고 유사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유적을 죄 버리고 단소를 파옮겨 간다는 것은 백만 권문의 체통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그러고서 타성씨에 무슨 낯을 들고 다닐 것이며 특히나 청도의 군민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가 ’ 하고 개탄하였다.

서울 종로구의 동봉東峰 권홍섭權弘燮씨는 ‘젊은 나이부터 오래도록 종사에 따라다니다가 나이가 들어 들어앉은 것이 오래인데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귀를 의심하다가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여 뛰어나왔다. 대관절 이게 무슨 정신나간 짓인가. 위토를 팔아 무슨 짓을 하려고 이단을 한다는 것인가. 이런 짓을 막는 일이라면 내가 늙었지만 전국의 권가가 모인 자리에 돌아다니며 유세라도 하겠다 고 기염을 토했다. 안산의 권택진 교수는 ‘문화재라는 것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역사성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위치성이야말로 훼손될 수가 없는 가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막중한 일은 후손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국가로 친다면 공청회는 물론 국민투표에 부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결정이 언제 어디서 소리소문 없이 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 하였고 영천의 권영성씨는 몸을 던져서라도 훼철을 막고 이단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천지역 후손들은 경주지역 족친과 연합하여 별도로 낭중공 봉향 기구를 조직할 결의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권병홍權炳洪 기로회장은 지난해 가을 시조 추향의 능동재사 대당회에서 이단문제가 결의된 과정에 대한 전문을 이야기했다. 이때 150여명이 모였는데 부산과 대전의 일부 종원이 주장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때도 신중론이 없지 않았으나 묵살되었다. 문화재 신청건도 심도있는 자료조사와 같은 준비없이 서류 한 건을 보내 형식적으로 각하되는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 있다. 근래에 와서는 청도 봉암재사에 수호인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의 사정도 단소를 옮기려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찌 되었든 현재 대종회에서는 금년 가을 추향 안으로 이단을 마치려고 서두르고 있으니 일이 급박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였다.

이때 이렇게 앉아서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장을 선출해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여 대책을 결의하고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나왔다. 이에 전원이 성균관 전례교육원장 권오흥權五興 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케 하였다. 권오흥 의장은 사안이 중차대한만큼 고견을 내어 대책회의의 명칭부터 정하자고 하고 의견을 물었다. 여러 안이 나왔는데 토의 끝에 기구의 명칭은 ‘아시조낭중공단소 및 유적보존비상대책위원회 로 확정되었다.

다음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였다. 의장은 사안이 중대한만큼 1인 위원장으로 감당이 어려우므로 공동대표를 선출하여 집단지도체제로 나갈 것을 제의했다. 공동대표를 5인으로 하자는 안이 나오고, 오늘 여기에 모인 인사가 모두 문중과 사회에 관록과 명성이 있는 분이니 전원 공동대표로 하자는 안도 나왔다. 결국 5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일을 주도해 추진케 하기로 하고 이 5인 공동대표가 집행부를 구성하여 업무를 집행케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고문으로는 사전에 권익현權翊鉉 전 민정당대표가 그 직을 맡기로 쾌락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고문과 위원장、부위원장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고문 : 권익현權翊鉉、권병홍權炳洪(기로회장)、권순현權純顯(강릉)

위원장 : 권영길權寧吉、권오흥權五興、권영익權寧翼、권홍섭權弘燮、권영성權寧成

부위원장 : 권택진權宅鎭、권오갑權五甲、권오식權五湜

비상대책위원회의 연락사무소는 서울 정릉동의 안동권씨 기로회 사무실에 두고 곧 현판을 걸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국 규모로 문중인의 집회와 유세 및 대소규모의 회동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문중의 의논을 활발히 일으키기로 하였다. 또한 그에 앞서 전격적인 이단을 저지키 위한 방안으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사진 · 글 權奇允>

기로회 월례회, 權寧相회장 사임

5월 11일 월요일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기로회 사무실에서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의 월례회가 열렸다. 권오일權五逸 총무가 성원보고를 하고 개회 의례를 행한 후 권준식權俊植 수석부회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였다. 회의를 주재하는 권준식 부회장이 회장의 유고로 회의의 주재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전월부터 사의를 표했던 권영상權寧相 회장이 신변사정을 이유로 서면으로 된 사퇴서를 보내왔다고 말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다. 권오일 총무가 권영상 회장의 사임서를 낭독하였다.

권준식 부회장이, 권영상 회장이 작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취임한 지 5개월에 사임하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좋은 의견을 말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이에 권영익權寧翼 명예회장이 권영상 회장을 ‘육군 대령으로 퇴역한 분으로서 그 경륜이 기로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추천하여 회장으로 선출케 하였는데 이와 같이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 그동안에 다져온 기로회의 결속력이 헤이해질까 염려된다. 작고 크고 간에 어느 조직체나 이를 이끌고 갈 회장직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단 이렇게 사의가 굳은 이상 사표를 수리하는 게 좋겠다 는 요지로 의견을 말했다. 이에 권영상 회장의 사퇴서는 만장일치로 수리되고 회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사진 · 글 權奇允>

▲ 기로회의 5월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